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3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5)

『죄 죽이기』 제13장 '아홉 번째 구체적인 지침', 인쇄 174~191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죄 죽이기의 아홉 번째 지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평안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는 먼저 두 가지 토대를 놓습니다. 위로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양심에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가 만든 평안'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표지를 제시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평안, 이성으로 결론 내린 평안,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평안, 다른 죄를 남겨둔 평안, 사람을 낮추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중간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네 가지로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약속의 위로를 붙잡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답합니다. 이 분별을 놓치면 죄가 마음에 유리한 자리를 잡고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경고로 장을 맺습니다.

📜 절별 정리

📜 1. 아홉 번째 지침: 하나님보다 먼저 평안을 말하지 말라

요약

이 지침은 죄책(죄를 지었다는 객관적 책임과 그로 인한 양심의 고발) 때문에 불안해진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죄책은 마음속에 뿌리내린 죄의 욕망에서 오기도

성향입니다. 이 장의 주제인 죄 죽이기(mortification)는 성령의 힘으로 그 성향의 힘을 날마다 꺾어 가는 일입니다. 오웬은 근거 없이 자기 자신에게 평안을 선언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축복하는” 큰 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스스로 살피라”고 거듭 경고하는 이유도 이 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만 그의 목적은 위험을 길게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빠졌을 때 알아차리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핵심:

- 죄책으로 불안할 때 스스로 평안을 선언 말 것
- 하나님이 영혼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것
- 근거 없는 자기 평안 = 하나님 거슬러 자기 축복
- 자기 점검을 명하는 말씀들은 이 악을 막으려는 것
- 목적은 겁주기가 아니라 분별을 돕는 것

성경의 근거: 이 단락은 다음 절들의 구절로 뒷받침됩니다.

📜 2. (1)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요약

오웬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거룩하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분은 이미 부르고 의롭다 하신 자녀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평안을 말씀하실지 스스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그분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신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은 탐심 때문에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며, 이 위로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당신의 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본성의 상태)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우리 예상을 자주 뒤집듯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도

핵심:

-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심
- 신자 중에도 평안의 정도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심
- 위로는 하나님 집안의 특별한 선물
- 위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 평안의 시기는 우리 계산을 벗어남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9:18 >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푸실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주권의 원리
고린도후서 1:3 >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자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
이사야 57:16-18 > 16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죄로 치신 백성을 하나님이 고치고 위로하심
이사야 57:19 >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위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열매, 곧 그분의 권한

📜 3. (2) 양심에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이다

위로가 하나님의 주권이듯, 사람의 양심에 “평안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상처를 엉터리로 치료해 놓고 스스로 평안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자신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괴로워하기도 하며, 거짓 근거 위에서 “나는 괜찮다”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우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착각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실제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오웬은 이 두 원리를 기억하게 한 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내가 만든 평안을 가르는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 양심의 평안을 선언할 권한은 그리스도께
- 라오디게아: 상처를 거짓 치료하고 평안 선언
- 우리는 착각하지만 주님은 참된 증인
-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상으로 판단하심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계시록 3:14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거짓 평안에 빠진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증인'이심
이사야 11:3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실상을 아심

📜 4. [1] 죄를 미워하지 않는 평안은 내가 만든 평안이다

요약

첫째 표지는 이것입니다. 어떤 죄로 괴로워하다가 평안을 얻었는데, 그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스스로 말한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고칠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이제 해결됐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가 계신 것처럼 보이는 “크고 강한 바람”일 뿐 그 안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찌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애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찌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믿음은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 능력, 사랑을 바라봅니다. 고침과 평안을 구할 때는 특히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받으신 모습, 곧 언약의 피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교황주의자들의 십자가 순례 같은 겉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와 의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에스겔의 언약 약속 뒤에는 부끄러움이 따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한 근심에는 분함이 따랐습니다. 욥은 엘리후의 은혜 가르침에 기대어 상처를 붕대로만 감쌌지만, 자기혐오에 이른 뒤에야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편 78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석”, “구속자”라 부르며 기도했지만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 평안은 새벽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핵심:

- 죄를 미워함이 빠진 평안은 거짓
- 찌른 그리스도를 보면 애통이 따라옴
- 평안을 구할 땐 그리스도의 징계를 바라봄
- 참 언약의 평안엔 부끄러움·분함·자기혐오
- 미봉책: 상처 뿌리는 두고 붕대만 감음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스가랴 12:10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자를 바라보면 애통이 따른다는 참 회개의 모습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상: 그리스도의 징계와 채찍
에스겔 16:60-61 > 60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는 자기 행위를 부끄러워함
고린도후서 7:11 >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경건한 근심에는 죄에 대한 '분함'이 따름
욥기 42:6 >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혐오에 이르러서야 욥이 온전히 고침받음
욥기 33:14-30 > 14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	은혜의 가르침도 자기혐오 없이 붙들면 미봉책이 됨
시편 78:33-35 > 33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했지만 평안이 금세 사라짐
시편 78:37 >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유: 마음이 정함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낮추시는 평안이고 마음을 녹이시는 평안이다.”
(5절의 문장이지만, 이 절의 결론과도 통합니다.)

📜 5. [1] 계속: 죄의 사탕을 혀 밑에 둔 채 구하는 자비

요약

오웬은 첫째 표지를 구체적인 예로 더 밀어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참 의사를 찾아가 약속을 믿고 평안을 얻었더라도, 그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상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겉만 싸맨 것입니다. 그 뿌리는 속에서 계속 곪아 더 고약한 종기로 다시 터집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 죄가 주는 괴로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비를 구하면서도 “죄의 달콤한 사탕을 혀 밑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세상을 따라 달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고 합시다. 그때 약속을 들어 양심을 달래면서도 정작 그 죄는 여전히 좋아하고 괴로움만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불 가운데서 건짐받듯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이 땅에서는 평안 없이 병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웬은 이것이 많은 교인의 평안을 뿌리에서 갉아먹는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남들도 죄가 떠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살피면 죄가 은밀히 남아 있고, 그 평안은 기도가 끝나면 곧 사라집니다.

핵심:

- 겉만 싸맨 상처는 곪아 다시 터짐
- 죄의 더러움보다 괴로움만 싫어하는 사람
- 자비 구하며 죄의 사탕을 혀 밑에 둠
- 결과: 평생 병약하고 평안 없는 신앙
- 애통하는 모습만으로 죄가 떠난 게 아님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일서 2:15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이 고발하시는 예
이사야 57:17 >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죄를 품은 채 사는 자의 병약하고 평안 없는 삶

📜 6. [2] 이성으로 결론 내린 평안은 거짓 평안이다

요약

둘째 표지는 자기 확신과 합리적 추론만으로 평안을 결론짓는 경우입니다. 양심이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고 고발하면, 이 사람은 지식이 있기에 해법을 압니다. 성경을 뒤져 자기 상황에 맞는 약속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내 상처에 꼭 맞으니 바르면 낫는다”고 추론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치시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지성의 활동일 뿐입니다. 오웬은 생명을 세 층으로 비유합니다. 식물 같은 생장의 생명, 동물 같은 감각의 생명, 사람의 이성적 생명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도 아래 두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도 본성적 이성과 부분적 깨달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영적 생명이 아니라 그 낮은 원리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에 빠진 사람이 이사야 55:7이나 호세아 14:4를 찾아 묵상하고 평안을 확신하면서도, 성령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오웬은 이것을 “평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지켜보시다가, 그가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다시 불러 참 회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핵심:

- 맞는 약속 찾아 바르기 = 이성의 작업일 수 있음
- 깨우치는 일은 성령만의 사역

-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나?”를 묻지 않음
- 기다리지 않고 평안을 '훔쳐 달아남'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복음 16:8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뿐
이사야 55:7 >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성이 찾아내 스스로 적용하는 용서의 약속 예
호세아 14:4 >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같은 방식으로 붙잡는 '반역을 고치리라'는 약속 예

📜 7. 질문과 답변: 성령의 길인지, 내가 만든 길인지 어떻게 아는가

요약

오웬은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만 다룹니다. “고침의 길처럼 보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내 작품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는 네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곧 알게 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지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안주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 잎과 거기서 얻은 평안을 걷어 가십니다. 지성이 만든 논리는 첫 시험이 오기도 전에 힘을 잃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택한 길이라면 대개 내 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처럼 하나님이 즉시 상하게 하고 즉시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집 나간 자녀를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너무 부끄러워 서성이는 자는 손을 잡아 들이시기도 합니다. 반면 스스로

가라”고 했을 때처럼, 본성적 기쁨은 있어도 믿음의 안식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을 설득할 뿐 아니라 의지와 감정에 유익을 주어 영혼을 안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넷째, 가장 나쁜 폐해는 내가 만든 평안은 삶을 바꾸지 못하고 죄를 고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 줍니다. 반면 스스로 바른 고약은 그리스도 없이 혼자 다시 싸우게 만들고, 며칠 뒤 새 상처로 끝납니다.

핵심:

-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곧 알게 하심
- 기다림은 은혜이자 요구되는 믿음
- 조급함은 자기 처방의 표지
- 참 평안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 안식
- 참 평안은 삶을 바꾸고 재발을 막음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시편 25:9 >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바른 길로 지도하신다는 약속
시편 130:6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께 힘써 주목하며 기다려야 함
이사야 8:17 >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범
열왕기하 5:19 >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위로의 말을 듣고 생긴 본성적 안심과 믿음의 안식의 차이
미가 2:7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

장절	이 구절의 역할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시편 116: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참 말씀은 영혼을 안식으로 돌아가게 함
시편 85: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평안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함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 8. [3]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평안

요약

셋째 표지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고 외치던 지도자들을 탄식했습니다. 오웬은 오늘도 약속을 믿음으로 한 번 흘낏 보기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2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헬라어로 '잘 섞이지 않아')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약속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섞어 잘 버무려 먹고 끝까지 소화해 그 약효를 다 흡수해야 합니다. “약속을 보고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웬은 이렇게 답합니다. “좋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해치웠다.” 그런 사람은 곧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평강” 외침만 남음
- 약속을 흘낏 보는 것 ≠ 고침
- 말씀에 믿음을 섞어 소화해야 함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예레미야 6:14 >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거짓 평강을 외치는 모습
히브리서 4:2 >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유익이 없음

📜 9. [4]·[5] 다른 죄를 남겨둔 평안, 낮아지지 않는 평안

요약

넷째 표지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평안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신 다른 중대한 악이 영혼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의무는 잘 지키면서 한 가지 의무만 반복해서 소홀히 한 사람이 그 문제로 괴로워하다 평안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적인 마음이나 교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똑같이 존중할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 안의 아주 작은 죄도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표지는 낮아짐입니다. 스스로 평안을 말한 사람은 거의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을 낮추고 녹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만큼 사람이 깊이 낮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핵심:

- 한 죄만 다루고 다른 죄를 품으면 평안 없음
- 모든 계명을 같이 존중할 때 평강
- 하나님은 작은 죄도 옳다 하지 않으심
- 참 평안은 사람을 낮추고 녹임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하박국 1:13 >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심

📜 10. 두 질문: 언제 약속의 위로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요약

오웬은 예상되는 반론을 둘 다룹니다. 첫째 질문은 “어떤 상처에 대해 약속으로 위로받아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빠르든 늦든, 죄짓는 중이든 회개하는 중이든, 내 상태가 만족스럽든 아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웬은 반대쪽 위험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강한 위로를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로워하십니다. 둘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어떻게 아는가? 다시 원점 아닌가?”입니다. 오웬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받는 것이 의무라고 확신될 때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보는 은밀한 본능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 아기가 뛰놀았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아가서의 신부가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즉시 알아듣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분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그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분별 경험이 쌓인 사람일수록 그 음성을 잘 판단합니다. 셋째, 그 말씀이 우리를 낮추고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녹여 순종하게 하고, 자기를 비우게 한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웬은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죄가 마음에 유리한 자리를 잡고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경고로 장을 닫습니다.

핵심:

- 믿음엔 그리스도 음성을 아는 본능이 있음
-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심
- 낮추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누가복음 1:44 >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면 믿음이 기뻐 뛴다는 비유
요한복음 10:4 >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분별의 근거
아가 5:2 >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신부는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즉시 앎
누가복음 24:32 >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함 (본문의 '다메섹 도상'은 문맥상 엠마오 길)
아가 5:4 >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가 그 영을 보내 마음을 사로잡으심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성령의 힘으로 신자 안에 남은 죄의 힘을 날마다 꺾어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죄를 짓게 만드는 성향.

죄책: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 앞의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양심의 고발.

양심의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었다는 마음속 안식. 오웬은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참되다고 본다.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용서와 고침의 약속.

경건한 근심: 하나님을 거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슬픔으로, 후회 없는 회개로 이끄는 근심 (고린도후서 7:10
11).

자기혐오: 자신을 미워하는 우울감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기의 추함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본성의 상태 / 은혜의 상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 / 회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

미봉책: 상처의 뿌리는 두고 겉만 붕대로 감듯,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임시 처방.

성령을 근심하게 함: 신자가 죄를 품고 있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선언하시는

- 죄를 미워하지 않는 평안, 이성으로 결론 낸 평안, 서두른 평안, 다른 죄를 품은 평안, 낮아지지 않는 평안은 거짓이다.
- 참 평안은 그리스도의 징계를 바라보는 데서 오고, 마음을 낮추고 녹이며,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 준다.
- 그리스도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려움 없이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 이 분별을 놓치면 죄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마음을 굳게 만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2편 · 회개했으니 이제 괜찮다? · 하나님보다 먼저 평안을 말하지 말라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